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2

▶ 93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외도의 주장을 논박하는 〈카타왓투〉를 머릿속으로 정리한 뒤 1천 명의 장로들과 논서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결집을 시작한다. 결집은 9개월 만에 끝났고, 아쇼까왕은 담마사절단을 이웃나라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아쇼까왕, 흰 옷 입혀 외도들 추방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을 위해 장소를 바꾸어가며 일주일 동안 내내 설법했다. 〈초전법륜경〉에 이어 〈팔정도경〉, 〈무아상경〉 등에 나오는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암송해주었던 것이다. 마지막 날은 특별히 아쇼까왕이 원했던 바를 설법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외도 가운데 아지비까 교단의 교조인 막깔리 고살라의 교설부터 설법했다.

"막깔리 고살라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결정론을 주장했으므로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생사 윤회하는 것은 인과 업보에 의한다고 가르치셨지만 막깔리는 모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막깔리는 운명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어떠한 수행도, 선행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행위, 청정함 등이 운명과 상관없다는 것인데 붓다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윤회의 길이는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괴로움 속에서 840만 겁을 윤회하며 살아야만 비로소 해탈한다는 것이 막깔리의 주장입니다."

아쇼까왕은 막깔리 고살라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생사윤회는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소. 그렇다면 막깔리는 무엇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우연히 윤회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막깔리의 주장은 결정론이자 우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쇼까왕과 마힌다가 소리 내어 웃었다. 아쇼까왕이 다시 말했다.

"막깔리가 살아 있다면 내가 공포하고 있는 담마 칙령을 비웃었겠소. 그러나 붓다가 왜 위대한지 누가 외도인지는 자명해졌소."

마힌다도 한 마디 했다.

"막깔리의 주장은 숙명론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조차 무용하다는 숙명론입니다. 운명이란 감긴 실타래 같은 것이니 실타래가 저절로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외도가 있소?"

"푸라나 까싸빠는 도덕을 부정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외도들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악업 짓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시나 공양 같은 선행을 해도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업을 쌓아도 내생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주장에 속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이나교 창시자인 나간타 나타뿟따는 숨막힐 정도로 도덕을 강요했고 극단적인 고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을 부정한다면 가정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소?"

"도덕이 필요 없다는 도덕부정론자 외도들은 법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설은 천박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소. 천박한 주장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소. 또 어떤 외도가 있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고 윤회하지도 않는다는 사후 단멸론자 외도들입니다. 아짓따 께사깜발리를 추종하는 외도들은 누구나 현재의 삶이 최초이자 최후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삶이 유일하니 마음껏 욕망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죽으면 물과 불, 흙과 공기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단멸론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시나 공양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선동하고 다닙니다. 이는 붓다의 담마를 훼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행이나 악행의 과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세상은 없으니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며 허황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믿는 것을 보니 한심한 외도들이오. 그런데도 사람들이 현혹되다니 이상한 일이오."

목갈리뿟다띳사는 산자야처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말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자 외도들도 있고, 파쿠다 깟짜야나처럼 선악의 인과는 없는 것이며, 생명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영원주의자 외도들이 있다고 말했다.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겠소. 고따마 붓다께서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 담마를 설한 위대함에 대적할 자는 땅에도, 하늘에도 없을 것이오. 과거에도 없었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이오. 나는 앞으로도 붓다의 담마를 추종하는 승가를 보호할 것이며, 담마를 권장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더 힘쓸 것이오. 수석장로님께서는 오늘 내게 설법한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는 것이 어떠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이미 이교도들의 교설이 틀렸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지면 〈까타왓투(Kathāvatthu, 論事)〉라고 이름붙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전날까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초전법륜경〉을 듣고 '담마의 실천자'로서 신심을 다진 뒤, 오늘 비로소 외도들의 교설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결심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나가자 즉시 호위대장과 경비대장을 불렀다. 호위대장은 추나르에 나가 있는 호위부대 조장의 공무부터 보고했다.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추나르에서 만든 석주들이 예정대로 각 지방으로 운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치언덕에 있는 사원에도 석주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호위부대 조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장은 물론이고 석주를 만들고 운반하는 백성과 군사들에게 포상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경비대장도 보고했다.

"아쇼까라마에 외도들이 몰래 반입하려고 한 물건들을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잘한 일이오. 다만 외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마시오. 그들도 수행자들이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아쇼까왕은 두 대장에게 일일보고를 짧게 들은 뒤 조만간에 아쇼까라마에서 외도를 추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소. 아쇼까라마 안에 있는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하여 외도를 추방할 것이오. 그러니 호위대장은 아쇼까라마 안에 당장 임시군막을 설치하시오. 나는 거기에서 휘장을 쳐놓고 심사할 것이오. 경비대장은 군사를 동원하여 아쇼까라마 수행자들을 통제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시오. 마힌다 장로의 허락을 받아 출입을 통제하시오. 또한 경비대장은 궁중창고지기 우두머리를 찾아가 흰 천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시오. 나는 외도라고 판단되면 흰 옷을 입혀 아쇼까라마를 떠나게 명할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명대로 하겠습니다."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 나는 내일부터 심사를 할 것이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를 다시 집무실로 불렀다. 마침 아상디밋따 정비별궁으로 가서 아상디밋따를 문병하고 있던 두 장로는 왕이 부른다는 우두머리 궁녀의 말을 듣자마자 집무실로 달려왔다.

"내일 아침에 심사할 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마힌다 장로는 우빠굽따 장로가 순례를 떠나고 없으니 아쇼까라마 수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오."

목갈리뿟다띳사가 힘주어 말했다.

"대왕님께서 원하신다면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막 안에 휘장을 치고 심사할 것이니 외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오. 낯익은 외도도 있지 않겠소? 장로님을 배려한 것이오."

"대왕님의 담마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아쇼까왕의 태도에 감격했다.

"마힌다 장로는 비록 외도라고는 하지만 군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오. 군사들이 외도들에게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군사들이 아쇼까라마에 들어와 경계를 섰다. 사원으로 들어오는 문에는 십여 명의 군사가 검문했고, 사원 안 곳곳에는 몇 명씩 조를 짠 군사들이 순찰을 돌았다. 비하르 앞에는 이미 임시군막이 가설되어 있었다. 새벽에 아쇼까왕이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할 것이라는 공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임시군막 앞에는 벌써 수많은 수행자들이 북적거렸다. 물론 1천 명의 불교 장로들이 자신이 계를 준 비구나 사미라고 알려온 수행자들은 심사를 면제해 주었다.

이윽고 노란 가사를 입은 수행자들이 한 사람씩 담마마하마따를 따라서 아쇼까왕이 기다리고 있는 임시군막으로 들어갔다. 담마마하마따가 "대왕님이시여,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자아쇼까왕이 휘장 뒤에서 목갈리뿟다띳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물었다.

"사문이여,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소?"

"고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시고 고행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쇼까왕은 고행주의자 외도라는 것을 알고 더 묻지 않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 옆에서 합장으로 외도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호위대장이 군사에게 명령하여 그를 강당에 가두었다. 임시군막에는 또 다른 수행자가 들어왔다. 아쇼까왕은 같은 질문을 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소?"

"인간은 윤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불과 물, 공기와 흙으로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후 단멸론자 외도가 분명했다. 그 역시 강당에 갇히었다. 인간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한 영원주의자 외도나, 진리란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 회의주의자 외도나,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수행이 필요 없다고 말한 숙명론자 외도 역시 강당으로 붙잡혀 갔다.

아쇼까왕의 심사는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이틀 만에 끝났다. 강당에는 외도들이 넘쳐났다. 군사들은 외도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했다. 마침내 수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호위대장이 수많은 외도들에게 노란 가사를 벗게 하고는 흰 옷을 입혔다. 그런 뒤 정중하게 대해주라는 아쇼까왕의 당부와 달리 인정사정없이 아쇼까라마 밖으로 추방했다.

그러자 마힌다가 아쇼까라마에 남은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고, 아쇼까왕은 소리쳐 물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소?"

"붓다께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담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쇼까라마에 남은 수행자들이 똑같은 말로 합송하듯 대답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옆에 있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물었다.

"붓다께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담마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가 대답하자마자 아쇼까왕은 앞에 서 있는 1천 명의 장로들에게 선언했다.

"장로들이여. 이제 아쇼까라마는 청정해졌소. 앞으로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이 참석할 것이니 온전한 우뽀사타를 행하시오."

목갈리뿟다띳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했다. 다시는 아쇼까라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계속〉

